



2022년 7월 17일(제1097호)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 말씀

## “우리에게 필요한 것”

‘피로사회’라고 불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는 다들 너나 할 것 없이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모두가 이러한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이들은 자연스럽고 ‘번아웃’ 같은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다들 지쳐가는 와중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배부른 소리라고 치부하며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에 급급한 모습들도 보이곤 합니다. 이처럼 조금은 피로한, 지쳐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선 우리에게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 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과 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고해성사를 주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던 신자들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을 지키지 못했고, 자주 미사 참여를 하지 못한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미사에 빠지는 것이,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단순히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혹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지키지 못했기에, 신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죄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죄’라는 것부터 잘못 인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것을 어기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고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하면 곧 범법행위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죄라는 것은 곧 ‘하느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행했던 행위들로 인해 주님

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사에 빠지고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느님 없이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이유들과 합리화로 신앙과 하느님을 등지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거나 잘못했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느님이 계시느냐?’ 하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건 간에 하느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느님을 위한 일이든, 가족을 위한 일이든, 나라를 위한 일이든 그 모든 곳에서 스스로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바쁜 일상을 지내면서도 순간순간 하느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노력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뜻을 얻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장진환(프란치스코) 신부  
소성(제17보병사단) 성당 주임

### 제 1 특 시 회 답 송 제 2 특 시 복음 권호송

창세 18,1-10ㄴ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골로 1,24-28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10,38-42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첫 번째 시

저의 동포들이 마침내 시온성으로 회두하여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구세주이신 하느님을 찬송할 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요! 만일 우리가 부당하다면, 적어도 당신의 사랑하는 성교회의 간곡한 기도와 애원으로 인하여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를 위하여 쏟으신 당신의 피를 기억하시어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굽어보시게 되기를 빕니다.

만일 신부님이 저더러 무엇을 청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것은 말고 오직 당신의 ‘작은아들’(filioli = filiöulus : 어린 아들, 귀여운 아들)인 저를 항상 기억해 주시기만을 청하겠습니다. 신부님은 저를 특별히 보살피 주시어 저에게 견진성사를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부님께 바라는 바는 진짜 십자가 나무[寶木]의 한 조각이나 성인들의 유해를 주셨으면 합니다. 지극히 공경하고 경애하올 신부님, 항상 편안하십시오. 신부님께 대한 추억은 제가 살아 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공경하올 스승님께, 지극히 비천하고 순종하는 아들 토마스 양업이 엎드려 절합니다.

두 번째 시

예수 마리아 요셉,  
팔가자에서, 1844년 5월 19일

르그레즈와 신부님께

신부님과의 애절한 서한 교환을 못하고 지낸 지 어느덧 3년이나 흘렀습니다. 육신으로는 비록 신부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나, 마음과 정신으로는 잠시도 신부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서툴고 어설픈 짓이 없으나 제판에는 온갖 정성을 다하여 격식에 맞게 쓴 서한을 신부님께 보냈는데 혹시 신부님께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하느님의 종 최양업 토마스 신부의 시집』 발췌, 청주교구 양업교회시인구소

복 음 록 상

- 베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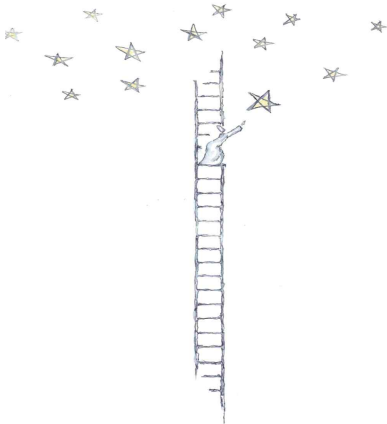
하늘에 별이라도

저 하늘에  
별이라도.

그리, 나를  
사랑해주는 이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하늘에  
별은 아니어도  
그 마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상화이야기

마리아와 마르타의 집에 계신 예수님



오늘 복음에 마르타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대목에서, 우리는 마르타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동등하게 대우 받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빵을 드리고 있고, 마르타는 열심히 경청하고 있다. 이는 몸이 필요로 하는 양식과 영혼이 필요로 하는 양식을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베르미어(1632년 ~ 1675년)  
1655년경 완성  
캔버스 위 유화  
160X142cm  
에티버리 스코티쉬 미술관,  
영국 스코틀랜드

이 두 자매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 라자로의 부활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마르타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있었다고 나온다. 그런 점에서도 두 자매의 성격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 모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나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섬겼다.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타인의 믿음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16주일: 맹호 김지훈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좌 국군중앙 성당 미사

때: 7월 17일(주일) 11:00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 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 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 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010-3837-5039)

“상제상시로 기뻐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